

<설날 가족 예배 순서>

일시 : 2018 년 1 월 16 일(음력 1 월 1 일)

♣ 예배선언 / 오늘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새해 첫날, 바로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다함께 설날 가족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묵상기도 /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 찬송 / 304 장(통일 404) 1,2 절

♣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3: 13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 말씀/ 왜 사랑이 으뜸일까?

0.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17)와 같이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삼을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바울은 왜 믿음보다 사랑이 으뜸이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생각 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실천의 종교 곧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2. 사랑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8:28-29)

귀신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존재도 알고, 그 능력도 압니다. 그러나 상관하기 싫어합니다. 관계 맺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3.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3:4-8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맞이하는 설날,
온가족이 모여 설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18년 올해, 우리 가족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는 더욱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함으로 채워주시고,
형제끼리 우애하며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시며, 바라는 것들이 올바르게 이뤄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아 멘-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04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 404)

보통으로

1.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2.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위의 영화시킬 때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저 높고 높 은 별 을 넘 어 이 낮 고 낮 은 땅 위 에
 주 믿 지 않 하 던 영 혼 들 은 큰 소 리 외 처 을 어 도
 한 없 는 하 나 님 의 사 랑 다 기 록 할 수 없 겠 네

죄 범 한 영 성 혼 구 하 려 그 아 들 보 내 사
 주 믿 는 성 도 들 에 게 큰 사 랑 베 푸 쏘 사
 하 나 님 의 크 신 사 랑 그 어 찌 다 쓸 까

화 목 제 물 삼 으 시 고 죄 용 서 하 셧 네
 우리 의 죄 사 했 으 니 그 용 은 헤 잇 을 까
 저 하 늘 이 쌓 아 도 채 우 지 못 하 리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성도여 찬양 하 세